



# 사무직 노동조합의 고민

지난해 11월, LG화재 노동조합 제5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지 약 3개월이 흘렀다. 많은 불면의 나날을 보내며 고민해 오고, 3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신없이 바쁜 일정의 연속이었다. 그 동안 지난 활동에 대해 찬찬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다가 이 지면을 빌어 그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정리하는 기회를 삼아 본다.

김효웅

LG화재노동조합 위원장

지난해 11월, LG화재 노동조합 제5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지 약 3개월이 흘렀다. 많은 불면의 나날을 보내며 고민해 오고, 3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신없이 바쁜 일정의 연속이었다. 그 동안 지난 활동에 대해 찬찬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다가 이 지면을 빌어 그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정리하는 기회를 삼아 본다.

글의 순서는 LG화재 노동조합의 간략한 소개와 사무직 노동조합의 특성, 위원장 선출이후 IMF상황 속에서 약 3개월 동안의 노동조합 활동과 노사관계, 손해보험 업계와 나아가 사무직 노동조합의 현실과

활동, IMF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순으로 적어본다.

## 자랑스런 LG화재 노동조합

우리 노동조합은 86년 5월 전두환 정권의 폭압이 극심하던 5공발기 때 당시 사용자의 일방적 고용불안 야기와 임금삭감 등에 맞서 탄생되었다. 이후 초대 선배간부들은 회사의 노조불인정에 대해 단체협약 체결, 전임간부 및 노조사무실 확보, 조합비 일관공체 등을 요구하는 노조사수부쟁 차원의 잇단 농성과 파업을 통해 단결권을 확보하였다. 87년 4월 전 국민의 직선요구를 쳐버리고 정권연장에만 눈이 먼 전두

환경권은 '호현' 선언을 하였고, 당시 한국노총 지도부는 '호현지지'라는 어용적 작태를 드러내었다. 이에 분노한 우리 노동조합을 비롯한 몇몇 사무직 민주노조 위원장들이 모여 이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한국노총 탈퇴 및 사무노련 건설투쟁을 진행하게 된다. 당시로서는 구속과 해고를 각오하고 결단을 내린 일종의 정치투쟁이자 조합주의를 넘어선 연대투쟁이었다. 사무직 노조의 이런 민주노조운동은 87년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과 맥을 같이하며 그동안 넥타이 맨으로서의 굴종과 소시민적 속성을 깨뜨리고 한국사회의 거대한 변혁운동에 동참하는 커다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사무직 노동조합의 한계와 장점

내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 사무직 노동자의 특징 혹은 한계는 승진 기회의 보장, 그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관리자 즉 비조합원이 됨으로서 노동조합 운동의 단절로 이어지기가 쉽다는 것이며, 이것이 생산직 노동자들의 계급적 성격에 비해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무직 노동자들은 사회적 비판의식이 높은 편이고, 올바른 구심점으로서의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면 직장의 민주화, 경영 참여, 사회 민주화 운동 등에 높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 또한 존재한다고 믿는다. 즉 폭발적 투쟁력은 부족하지만 양심과 상식에 근거한 조합원

들의 자주적, 민주적 참여가 노조간부들의 올바른 활동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많은 경우 노조간부들의 노동조합 운동관의 부재, 헌신적 활동 부족, 그리고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경험과 인식부족으로 노동조합을 잘못 이끌거나, 힘들게 운영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례를 종종 본다. 집행부 중심의 활동이 조합원들의 참여의장을 만들지 못하면서 조합원들과 괴리되고, 거꾸로 조합원들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푸념만 하는 사이 노동조합은 서서히 무너져간다. 그러다보면 위원장 선거시 아무도 출마하지 않는 한심하고 부끄러운 사무직 노동자들의 자화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지금같은 IMF 상황에서는 더욱….

### 90개 지부의 한계를 극복하는 '전국동시지부총회'

우리 노동조합은 제주에서 강릉까지 전국에 걸쳐 지점과 보상사무소로 구성된 사업장이다. 전국에 약 90여개의 지부(분회라 칭하는 노조도 있다)에 총직원 3,500여명 중 2,600여명의 조합원이 산재해있다. 각 지부는 20~4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타노조는 분회라 칭하기도 하며 계조업 노조의 공장단위 지부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한 곳에 모여있는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에 비해 그만큼 노조활동이 어렵다. 1년에 두어차례의 전국 지부순회는 조직력 강화 및 집행부와 조합원의 괴

리극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직활동 중 하나인데 한번 전국순회시 집행부를 3개 조로 나눠 약 한달간에 걸쳐 힘든 장정이 진행된다.

일상적인 조직활동과 회의활동을 위해 한달에 한번씩 매월 세째주 수요일에 전국 동시지부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발언하는 구조를 구축해 놓은 것이 LG화재노동조합이 사무직 노조의 모범적 활동으로 인정받는 핵심적 구조이다. 전국 90여개 지부의 지부장과 대의원을 중심으로 같은 날 동시에 지부총회가 개최되어 회의록이 본조에 송부되면 집행부는 그것을 수렴하여 활동하고 고충처리도 해나간다. 이러한 구조가 정착되기에는 10여년에 걸친 노조간부들의 헌신적 활동이 있었음을 물론이다. 이러한 구조속에서 계속적으로 노조간부들이 배출되고, 지난해 노동법투쟁때는 지부총회를 통해 우리의 의지와 분노를 모아 수백명의 조합원들이 집회에 참석하여 LG화재의 깃발을 흔들며 네 타이 부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자부한다.

### '노사공동비상대책위' 활동

나는 89년 입사 이후 대의원과 비상근 집행위원, 그리고 지난 3년간 전임 부위원장 등의 활동속에서 많은 개인적 고민과 결단속에서 지난해 11월 위원장으로 출마하였고 올해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 임기가 시작된 후 곧바로 집행부 구성을

마치고, 1월초부터 한달간 전국지부순회를 통해 지부장, 대의원 선출을 통한 조직 강화 활동과 98년 임금·단체협약을 위한 조합원 의견수렴의 일정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지부순회 사흘째 되던 날, 회사는 1월 상여금 지급연기 입장을 전달해왔고 또 한 부서장을 대상으로 상여금 반납서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 회사의 논리는 IMF한파를 타고 1월들어 급격히 증가한 장기보험 혜택환급금으로 인한 현금유동성 확보와 매출감소로 인한 사업비부족이었다. IMF로 인한 실업증가, 임금체불 등은 보험혜택사태로 이어졌고, 또한 은행 등의 고금리 상품 판매로 인한 보험혜택자 증가 및 매출감소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 수년간 20~30%의 성장과 10% 이상의 임금인상을 쟁취해 온 조합원들에게 상여금연기라는 회사입장은 직원들에게 충분한 공감대형성도 없는 일방적 조처로 결코 납득될 수 없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에서는 1월 상여금은 일단 정상지급할 것, 부서장에 대한 상여금반납 일방서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 공개를 통해서 직원들이 납득할 때만 고통분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회사에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노사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 및 재무제표 등에 대한 브리핑과 노동조합의 연구팀의 분석작업이 약 보름간 진행되었다.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의 고통분담안을 제시하였고 회사는 향후 고용안정노력과 경영투명

**손해보험업계의 상위사로서 높은 매출성장률과  
임금인상을 해오던 우리 노동조합에서 고통분담을 고민하는 상황은  
정말 참담한 것이었다.**

.....

성 및 책임경영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노사합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찬반투표에서 높은 찬성을로 일단 올해 임단협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손해보험업계의 상위사로서 높은 매출성장률과 임금인상을 해오던 우리 노동조합에서 고통분담을 고민하는 상황은 정말 참담한 것이었다. IMF상황을 만든 정치·관료들, 재벌경제구조에 분노하면서도 우리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잉여인력 운운하는 현실에서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조합의 고민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할 것같다. 다만 IMF로 인해 노동조합의 경영참여가 이제 본격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은 우리 민주노조 진영에서 가장 중요한 산별노조 건설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과 동시에 더욱 무거운 노동조합 활동의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한국의 재벌경제 구조속에서 사용자들은 회사의 경영상황 전반을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제 노동조합은 경영참여를 확보하여 회사의 일방적·독선적 경영을 견제해나가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소외를 참여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영에 대해 책임을 묻는 책

임경영의 풍토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무직 노동조합이 임단협의 좁은 울타리속에서 조직력이 날로 쇠퇴해가는 현실을 전화위복할 수 있는 기회로서, 현재 사무직 전반에 걸쳐 만연된 인원정리, 임금삭감에 맞서 노동조합에서 경영상태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 **단일노조건설과 경영참여가 필요하다**

우리 노동조합은 민주노총의 사무노련 소속으로 사무노련은 증권, 보험, 카드, 리스, 종금 등 제2금융권 노동조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얼마전 동서증권 노동조합 위원장이 부도난 회사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원을 정리하는 눈물겨운 상황이 TV에 보도된 적이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고려증권과 달리 동서증권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회사살리기를 위한 자구노력이 힘겹게 진행되고 있다. IMF상황속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회사의 공세에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으면서 IMF를 한탄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분명 문제가 있는 노동조합이다. 사무노련

은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증권사노동조합들이 작년부터 단일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생명보험단일노조는 조만간 건설될 것이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이 소속되어 있는 손해보험노동조합협의회는 아직 구체적인 소산별건설의 빌결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극악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 기도를 단위노조별로 막아내는데 급급했던 탓이었다. 손해보험노조 위원장 회의에서는 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해 사업의 핵심을 부당노동행위 연대투쟁으로 설정하였다. 1차로 대표적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인 동양화재 사용자의 조합원 탈퇴, 임금삭감, 노조파괴단체 지원에 맞서 손노협과 사무노련의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승리를 이끌어냈다. 현재 신동아화재, 국제화재의 부당노동행위 연대투쟁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 손해보험 노동조합은 이러한 연대투쟁의 과정과 성과속에서 산별노조 건설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위원장이 된지 3개월여 흐른 지금 우리 사업장의 경영상태 점검과 임단협, 그리고 손해보험노동조합의 연대투쟁과 현재 진행중인 전국지부순회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후회없는 삶의 한순간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함께 IMF위원장으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

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급단체인 사무노련과 민주노총은 하루 빨리 지도의 구심점을 확보하여 지난번 노사정합의 이후 약화된 지도력을 회복하고 지도체계의 중심을 잡아 힘겨운 싸움을 벌여나가고 있는 단위노조를 강력히 이끌어가 줄 것을 단위노조 위원장으로서 간절히 당부하며 글을 마친다. ♦